

# 새벽을 밝히는 뜨거운 젊음

서울대교구 서교동성당 W.I.T.H



‘젊음’, ‘젊은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넘치는 에너지’, ‘열정’, ‘도전’ 등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젊은이들은 저마다 삶에서 넘치는 열정으로 무엇인가에 도전한다. 그런데, ‘어디에 도전하는가?’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수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 그것들은 하느님과, 또 이웃과 가까워지게도 하고, 멀어지게도 한다. 우리가 가진 힘이 하느님과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찬 일일까. 그 힘을 이웃을 위해 보람있게 쓰며 새벽을 밝히는 서교동성당 청년 봉사 단체 ‘W.I.T.H’를 만나러 토요일 새벽 봉사 현장에 가 보았다.

취재 오민석

## Q 'W.I.T.H'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단장(김경태 야고보):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교동성당 청년 봉사 단체 'W.I.T.H'입니다. 'W.I.T.H'라는 표현은 'Within Inspiration Thought Heart', '하느님의 영감 안에 같은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저희 단체는 젊은 청년들이 가진 신앙과 열정을 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쓰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청년회원들이 모여서 미사만 하고 헤어지거나 놀러 가는 것보다, 저마다 가진 талан트를 이웃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장(홍수린 프란치스카): 저희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은혜로운 집'이라는 정신 장애인 시설에서의 노력 봉사
- ② '나눔의 집'이라는 청소년 생활 학습 시설에서의 1대1 멘토링
- ③ 양로원 노력 봉사나 연탄 배달 봉사
- ④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 식사 봉사 등입니다.

주임신부(이종남 라이문도): 원래 식사 봉사는 성당 안에 마련된 공간에 들어와서 배식을 받아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그것이 금지되다 보니, 봉사를 할 지향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단원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니 방법이 나오더군요.

'Walking THRU'. 그들이 성당에 들어와서 식사할 수 없다면 지나가면서라도 식사 거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한 밥보다는 덜 따뜻하겠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굶주리지 않게라도 할 방법이 생각났지요. 그리스도인은 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봉사자 부대표(김명희 미카엘라): 식사 봉사는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쯤 성당에 모여 6시 반에서 7시까지 배식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준수로 인해 성당 안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락이나 김밥과 컵라면 등 간단한 식사 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봉사 인원도 식판 배식의 경우 조리과 배식, 설거지까지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대폭 축소된 상태입니다.

단원(신재민 안젤라): 많은 인원이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역 수칙의 준수도 꼭 필요한 일이라 시청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관련해 봉사활동의 경우도 제한되는지 문의해보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괜찮다고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오래 이용하셔야 하거나, 어린이들을 접해야 하는 분들은 아쉽지만 방역을 위해 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Q 봉사단체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부주임신부(홍용기 아우구스티노 신부): 좋은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 빈첸시오회 신자들이나 주변 상권 분들의 금전적 도움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회원들과 본래 이곳의 신자였다가 이사를 했음에도 이곳까지 오는 봉사자들도 있어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봉사자의 자격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서교동 본당의 신자가 아니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인상적인 일이 있으셨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단장: 가난한 분들이 돈을 모아 반년에 한번 정도 기부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식판 배식이 아닌 도시락으로 바뀌어도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또 멀리서 오셨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 헤아려주시고 방역 수칙에 협조하며 식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죠.

단원: 저희 단원들이 함께 하면서 친교가 더 깊어 가는 것, 서로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단순히 놀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친해지니 이 봉사활동이 더 소중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배식 봉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실 때 보람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봉사자 부대표: 몇 년 동안 봉사를 해 오며 저도 다 같이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신부님들, 수녀님들과 빈첸시오회 어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당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니 저희도

든든하고, 어려움 없이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부단장: 정신 장애인 시설에 노력 봉사를 하러 가는데, 보통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만 해 드리곤 했어요. 봉사활동이 끝나면 저희끼리 단체 사진을 남기기도 하는데, 시설의 직원분들은 바쁘시고, 장애인 분들은 대화가 어려우신 상태이니 항상 '셀카'로만 찍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어눌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저희도 너무 놀랐는데, 저희 핸드폰을 받아 정말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사진은 물론 초점이 흔들리고 얼굴도 잘 안 나왔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진이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장: 이곳은 봉사하고 싶고, 신앙인들끼리 친교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봉사는 봉사대로 하면서 저희끼리 어울려 놀기도 많이 했습니다. 즉석에서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죠.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행사도 축소되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임이 없어 단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재미있게 일을 진행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회식을 다 같이 할 수 없으니 각자 집에서 ‘회식’을 하며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 회식’이 있고, 그런 영상 회의 플랫폼을 노는 일에만 쓰지 않고 영상으로 단체의 일을 회의할 때 사용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단체 안에 다양한 인재들이 많아요. 미술이나 음악 전공, 교사 등 저희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인원이 여기 다 있습니다.



**Q 이 일을 하시면서 소중한 인연이 생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원: 저희에게 배식 봉사를 받으시러 오시는 노숙인 분들의 얼굴이 이제는 눈에 익숙합니다. 배식 줄 맨 앞에 서시는 분들, 매번 오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군복을 입고 오셔서 큰 목소리로 경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자 부대표: 나눔의 집 학생들도 생각이 많이 나죠. 1대 1로 월 2회 멘토링을 하다 보니 연락을 자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소년 시설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자활을 하러 나가야 해요. 학생이 졸업해서 취직하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기도 해요.

단장: 졸업한 친구들이 한잔하자고 성당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부단장: 사랑평화의 집(서울역 쪽방촌 도시락 봉사단체)이라는 곳에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20명 이상 봉사자가 필요한 곳이에요. 다른 본당이나 지구 임원들, 목동, 영등포의 청년들까지 동원해서 45명이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아서 점점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Q 봉사활동을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바는 어떤 것이지요?**

단장: 스스로의 부족한 점에 대해 절감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열심히 봉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단원: 코로나19로 미사를 참례하기 어려워질 때,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성당에 계속 나오다 보니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시기에 봉사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봉사는 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자 부대표: 봉사라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성가대나 전례부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талант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봉사할 마음이 든다는 것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희망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부주임신부: 일단은 봉사 단체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곳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어려운 우리의 이웃은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어디에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많은 본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본당이 있는 지역(홍대입구역)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강론 때나 고해성사 때 주는 보속으로 선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실은 선행할 곳이 별로 없어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선행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보속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새 신자가 된 청년들이 기쁘게 선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W.I.T.H'라고 생각합니다. 'W.I.T.H'는 토요일 새벽에 주로 봉사하기 때문에 본업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웃을 위해 더 많은 청년들과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답게' 살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을 밝히는 그들의 빛나는 열정이 어둠과 추위를 물러가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젊은이들의 손에 하느님께서 언제까지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선행을 낱알이 헤아려 축복해주시기를 기도드린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묵시 2,19). 아멘.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withlove.site](http://withlove.site)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랑  
정말